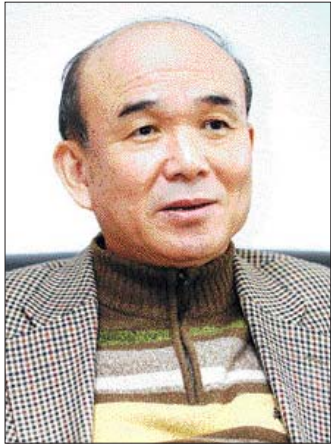


### '로스쿨 실시' 전남대·조선대의 각오

#### ■ 박휴상 전남대 법대학장

## “호남인재의 요람”

“전남대는 광주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박휴상 전남대학교 법대학장은 전남대가 로스쿨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8월 학장으로 취임한 박 학장은 실사단 앞에서 선보일 강의 시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남대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지 로펌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교수가 영어로 소크라테스 대화법 등을 접목해 강의하는 교습 방식을 28일 학교를 찾은 실사단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e-러닝도 함께 공개된다.

#### 공익·인권법 특성화 새 교수법 개발 총력

다름 리허설은 하지 않았지만, 자체 점검을 통한 실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 김 학장은 “호남의 인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곳이 전남대”라며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당연히 로스쿨 설치에 전남대에 되는 게 맞다”고 역설했다.

전남대는 지난 2004년 법대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로스쿨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로스쿨 준비 로드맵을 마련, 교수 총원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현재 실무형 교수 10명을 포함한 35명의 교수를 확보했고, 최종적으로 50명을 채용 예정이다.

전남대는 국립대 이어서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태에서, 전남대가 신청한 정원 150명의 55%인 8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고,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원 수준에서 맞춰진다. 로스쿨을 위해 모금된 장학기금은 현재 13억5천여만원이다.

박 학장은 “현재 여교수 3명을 비롯해 교수 총원도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며 “호남의 대표 대학으로 지역 인재들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전남대가 로스쿨을 유치해야만 한다는 것을 실사단에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28일 로스쿨 신청 대학인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실시된다. 교수와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현장실사단은 지난 20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1일까지 전국 41개 대학을 1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방문할 예정이다. 실사가 모두 끝나는 내년 1월 말 로스쿨 인가 대학이 발표된다.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에 뛰어든 전남대와 조선대의 법대 학장을 만나 로스쿨 유치를 향한 양 대학의 각오를 들었다.

#### ■ 김춘환 조선대 법대학장

## “지역발전 전인차”

“최종 리허설까지,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난 22일과 26일 두 번의 리허설을 마친 김춘환 조선대학교 법대학장은 자신감에 넘치면서도 조심스럽게 로스쿨 현장실사단을 맞이하는 각오를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 2004년 모의법정을 갖춘 현재의 법대 건물 건축을 신속하면서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법학전문도서관을 마지막으로 외형상의 로스쿨 설치 준비는 끝났다. 새로 부임한 전호중 총장도 ‘제2의 건축’을 기치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상태다. 조선대는 이미 조성된 300억원의 장학기금 외에 3년간 108억원을 더 모아 연간 20여억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로스쿨에 필요한 34명의 교수 확보도 모두 마쳤다. 조선대가 신청한 로스쿨 정원은 100명으로 교수 1인당 학생수 비율이 9.1명이다. 실무 교수는 검사나 판사를 지낸 법조 출신과 법의학자, 공인회계사 등 비법조 출신을 포함해 11명이다.

김 학장은 “최근 교육부가 여교수 비율을 인가 기준에 넣은 것이 조선대로선 아쉬운 부분”이라며 “앞으로 5명까지 여교수를 확

#### 문화 관련법에 초점 학생·동문까지 나서

문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5년간 법조인 배출 숫자를 로스쿨 인가 기준에 넣겠다고 한 것도 조선대로선 걸림돌이다. 김 학장은 그러나 “대법관(이성렬 전 대법관·1953년 조선대 법대 졸업)을 배출하는 등 지금까지 조선대 법대가 국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학장으로 취임했지만, 전부터 교내 로스쿨유치위원회 실무진을 활동했기 때문에 김 학장은 사실상 최근 몇 년간 로스쿨에 ‘몰인’하고 있는 셈이다.

“아침에 눈뜨면서 잠들기 전까지 머릿속은 온통 ‘로스쿨’ 생각 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도 이미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요.” 김 학장은 “법대 교수들 뿐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 동문까지 나서서 조선대의 로스쿨 유치를 응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성화 계획도 광주의 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문화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워킹라이프 기자 jrwi@kwangju.co.kr

##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 광주시교육청 장학계획

내년 광주 교육의 윤곽이 잡혔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등 10대 과제가 포함된 ‘2008학년도 장학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설정한 내년의 교육 지표는 ‘아름다운 품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으로 5대 주요 시책은 ▲사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꿈을 이루는 평생학습능력 신장 ▲더불어 배우는 교육복지 증진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 등이다. 또 ‘외국어 교육의 강화’ 및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는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멘토링을 통한 장학위원회 등을 구

축하고, 교내 자율장학, 지구별 장학, 시교육청 장학, 요청 장학, 사이버 장학 등 다각적인 장학 지원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수준별 수업 시행, 영어교사 원어민화를 위한 연수 강화, 상용영어 문장 외우기대회, 모자동행 독서기행, 음악 졸업기와 수영 생활화, 5·18 성역 가족걷기대회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밝혔다.

통상 매년 1월말에 실시해왔던 장학계획 설명회를 한 달 가량 앞당긴 것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에 개학하는 학교들이 미리 발표된 장학계획에 맞춰 1~2월 중 연간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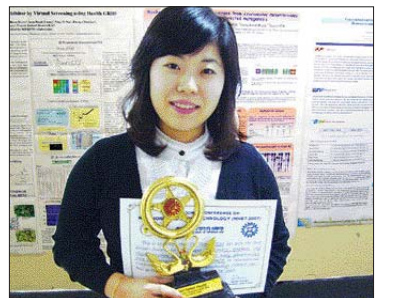
## 전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강진씨 국제 학술회의서 최우수 논문상

“연구를 통해 추출된 물질이 제품 생산으로 연결돼야 비로소 연구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도에서 열린 ‘제4회 국제생명공학학술회의’(New Horizons in Biotechnology·NHBT 2007)에서 최우수 포스터 논문상을 수상한 전남대 생물학과·생명기술학과 대학원생 강진(여·23·석사과정 1년차·사진)씨의 포부다.

21개국에서 연구자 1천400여 명이 참가한 NHBT는 생물공학·유전공학·단백질공학 분야의 대표적 국제 학술회의로, 박사급 연구자가 아닌 대학원생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강씨의 논문 주제는 ‘효소를 이용한 알부민 배당체 합성과 특성 연구’. 연구를 통해 강씨는 김치균으로부터 얻은 효소를 이용해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화학 전공이 아니어서 물질의 구조를 분석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또 샘플링에 필요한 양을 얻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밤을 새는 일도 많았습니

다.” 강씨는 “연구 주제를 정할 때부터 실험을 지속해오는 과정까지 지도교수님의 도움이 많이 받았다”며 “졸업 논문에서는 향산화제나 항암제 역할을 하는 산물을 변형시키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2008 새해 정동진 해돋이 전세열차**

신선한 아침 공기,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주)대원여행사 ☎ 062) 265-7000 / Fax 062-7777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진품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전통의 맛을 선사합니다.

떡양한과

☎ (061) 383-8283

**쓸수록 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최저가 공장의 난방비율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종

**난방비 1/3로 줄었다!**

TEMPIA

☎ 062) 955-4222 / ☎ 080-701-7117